



목장 나눔지 & 개인묵상지

(목) 환영 - 얼음 깨기(Ice-breaking)

- 당신에게 힘이 되는 노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왜? 다같이 그 노래를 불러 보세요.
- 당신이 초등학교이나 중고등학교 시절 엄마에게나 아빠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장) 장마비와 같은 한양과 경배

복음성가중심

마지막 날에 (찬미)
우리가 걷는 길은 (찬미)
성령이 오셨네 (찬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미)

찬송가 중심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520)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499)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456)
돌아와 돌아와(찬525)

(교)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 - 말씀 / 기도

나눔 질문

설교제목

“가장 듣기 싫은 말, 반드시 해야 하는 말”

사도행전 26장 19~29절

요약

살면서 꼭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다. 말하기 힘든 말도 있다. 그러면 예수 믿으라는 말은 어디에 해당하는 말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한다. 어쩌면 예수 믿으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말하기 힘든 말이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말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체험을 하면 우리 안에 감격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감격이 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도를 한다. 그런데 막상 전도를 해 보면 반발이 만만치 않아 회의가 생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예수라는 단어조차 입 밖에 내질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거절당하는 두려움때문이다. 그러나 거절하는 게 당연하다.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코웃음치는 게 당연하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미친 사람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니 복음이니 하는 말은 핏박의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범으로 잡혀진 것 없다. 그저 무안함 정도이고 그저 거절당하는 것뿐이다. 그런 거절이 우리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넣지는 않는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도 아니고 하기 쉬운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로 전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믿으라는 말은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이다. 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다. 이제 당신의 입술을 열어 참되고 정신 차린 온전한 말을 하라. 예수로 누린 간증을 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을 꺼내라.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하는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해 주어라.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는 말을 하라.

나눔

나눔1. 지난주일 선포된 말씀(요한복음 20:19-23 “성령으로 살아야 사는 성도”)을 듣고, 당신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었습니까?

나눔2. 가족들에게 특히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한다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나눔3. 당신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하기 쉬운 말입니까? 하기 어려운 말입니까? 아니면 듣기 싫은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눔4. 전도하다가 크게 거절당하여 무안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의 당신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 일 이후로 당신에게 전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눔5. 예수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고,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다짐하실 수 있습니까?

나눔6. 이 세상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말,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며 살아가기 위해, 이 한 주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할 사상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이 일을 위해 당신은 어떤 일들에 도전하시겠습니까?

(회) 회원들을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 - 중보기도

-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감사할 일과 기도할 일(부담, 근심, 고통스러운 일들)을 나누고 기도하세요.
- 나눔을 하면서 나온 기도제목들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함께 기도하세요(서로 손을 얹고).
- VIP를 위해 **방식, 빈의자, 이름표등을 이용하여 함께 중보** 기도하세요.
- 가족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위해 기도하세요.
- 환우&자녀를 위한 기도(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교회사무실로 알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환 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자택) •강일승집사(회복/자택) •김경섭집사(회복/자택) •김경숙성도(회복/자택) •김금심권사(회복/자택)•김기억집사(회복/자택) •김동식성도(회복/자택) •김명자집사(회복/자택) •김병환집사(회복/자택) •김은자권사(회복/자택) •김재홍집사(회복/자택) •문성곤님(치유/자택) •문환집사(치유/자택) •박근우집사(회복/자택) •서영지님(치유/요양원) •서재석집사(회복/자택) •성경성도(회복/자택) •심상철집사(회복/자택) •양회현집사(치유/자택) •오상기성도(회복/자택) •이인기집사(회복/자택) •이정순집사(회복/병원) •이하연아기(치유/자택) •장석수성도(치유/병원) •주준영청년(회복/자택) •최순수집사(회복/요양원) •한옥희권사(회복/자택) •홍명자권사(회복/자택)
군복무	
유학/해외	강하연(미국) 김성우(미국) 정유진(폴란드) 최영진(일본)

(모) 모든 가족이 사역에 참여 - 사역 계획과 나눔

※ 교회, 부서행사 및 교육 훈련 안내

◆ 교회 홈페이지- <http://www.schsm.net> ※모바일 홈페이지- <http://m.schsm.net>

- ◆ **성령강림절**- 성령께서 내게 오심을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알고 예수 전하는 삶이 되세요.
- ◆ **새가족 교육①**- 12일, 낮 12:30, 기억공장카페 2층 ☞대상: 2020년~현재까지 교회등록한 새가족
- ◆ **금주 성경필사**- 사도행전 26~28장(주보 성경읽기표를 참고)
- ◆ **성경필사 책자구입**- 갈라디아서~히브리서/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하세요.(본인부담 5천원)
- ◆ **중보기도회**- 화요일 저녁7시, 소예배실(1층)
- ◆ **젊은이교회 예배시간 변경**-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예담홀(4층))
- ◆ **교회 전기공사**- 16일(목)~17일(금), 새벽예배 정상진행/ 일과시간에는 시설사용이 제한됩니다.
- ◆ **입원**- 이정순집사(한국병원), 장석수성도(서울 삼성병원)
- ◆ **목장보고**- 각 목장의 목자께서는 한 주간 목원들이 읽은 성경 쪽수를 취합해, 목장 기도제목과 함께 교회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 금 / 찬송

(임)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 or 주기도문

각기 다른 지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합니다.